

이봉영 영암군체육회장, 체육유공훈장 ‘거상장’ 영예



이봉영 영암군체육회장

이봉영 영암군체육회장과 정나은 화순군청 배드민턴 선수가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체육상인 체육훈장 거상장(3등급)과 맹호장(2등급)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전남도 체육인인 안종택(여수충무고 수영 지도자·맹호장), 윤웅진(전남도청 우수 선수·체육포장), 안세영(삼성생명 배드민턴 선수·대통령표창) 등도 함께 선정 수상하는 경경사를 안았다.

24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이봉영 영암군체육회장과 정나은은 최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5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3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에서 각각 거상장과 맹호장을 수훈했다.

‘체육훈장’은 체육 발전에 현저한 공을

정나은 선수 ‘맹호장’ 수상…체육발전 유공 체육훈장 안세영·안종택·윤웅진 수훈…“체육발전 주도할 것”

세워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이에게 수여되는 국내 최고 권위의 훈장이다. 이봉영 회장과 정나은은 그동안의 공과를 고려해 전남도체육회가 추천한 체육인들이다.

영예의 수상자인 이봉영 영암군체육회장은 영암군축구협회장, 승마협회장, 민선 1~2기 영암군체육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체육인재 육성에 앞장선 인물이다.

영암 유소년 스포츠클럽 창단(육상·수영·씨름)과 전국 민속씨름대회를 성공

개최(2회) 하는 등 지역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제임 기간 영암군체육회 직원과 지도자의 치우개선 및 복지향상, 체육기반 시설 확충, 체육 꿈나무 육성 및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을 이뤄냈다. 이는 타시·군체육회에서 벤치마킹한 사례로 손꼽힐 만큼 탁월한 성과로 알려졌다.

정나은은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단체 금메달, 2024년 파리올림픽 혼합복식 은메달 획득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며 대한민국과

전남체육의 위상을 크게 드높였다.

더욱이 전국체전 등 국내 각종 대회에서도 다수의 메달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전남체육회와 협력해 유망주 발굴 및 훈련캠프에도 꾸준히 참여했다. 이로써 후배 양성을 위한 멘토 역할도 자처하는 등 전남 배드민턴 발전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 소속 체육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상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전남체육이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축으로 더욱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정나은 화순군청 배드민턴 선수



민주평통자문회의 광주서구협의회가 최근 광주 서구청 들불홀에서 제22기 출범식과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제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광주서구협의회 출범

서구청 들불홀…130명 참석해 역량 강화 등 논의

민주평통자문회의 광주서구협의회가 최근 광주 서구청 들불홀에서 제22기 출범식과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김동석 서구협의회장, 김기장 서구청장, 전승일 서구협의회

장을 비롯해 지역 대표 자문위원과 임원 등 130여명이 참석해 제22기의 힘찬 출범을 함께 기념했다.

22기 서구협의회는 민주평통의 핵심 가치인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평

화통일 기반 조성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 공존 실현’을 주요 활동 방향으로 설정하고, 지역 현장에서의 평화·통일 활동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협의회는 김동석 신임 회장의 취임과 함께 향후 2년간의 운영방향을 공유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통일 사업 확대에 뜻을 모았다.

또 자문위원들은 분과위원회 운영, 정책건의 과제 발굴,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등 협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과제를 논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석 광주서구협의회장은 “제22기 서구협의회가 주민 의견을 국정에 담아내는 소통의 중심 기구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에서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윤웅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성인들이 밤에 펼치는 과학 페스티벌 ‘성료’ 국립광주과학관, ‘발효로 물든…’ 주제 전통주 만들기·토크 콘서트 등 ‘다채’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과학기술인공제회(이사장 황판석)와 최근 과학관에서 ‘제15회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19+’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성인들이 일상 속 과학문화화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발효로 물든 과학의 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케이터링과 힐링 음악 콘서트, 맥주 속 과학 이야기를 알아보는 토크 콘서트, 전통주 만들기, 치즈 아카데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이 드레스 코드인 브라운과 블랙의 옷차림으로 행사에 참여해 현장의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중년 부부는 “일상에

서 자주 접하는 발효 음식 속 과학을 새롭게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발효 과정을 배우고 직접 맛보며 비교하는 과정에서 과학이 실제로 느껴지는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밝혔다.

제16회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19+’는 오는 12월 12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담아 ‘러브 & 나잇’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영 국립광주과학관 과학문화실 연구원은 “참가자들이 과학을 흥미롭게 체험하고, 일상 속에서 과학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준비될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



국립광주과학관은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최근 과학관에서 ‘제15회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19+’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사진은 전통주 만들기 체험 모습.

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광주과학관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19+’는 성인을 위한 특별한 과학문화 행사로, 과학관은 아이들만을

위한 곳이라는 기존 인식을 넘어 성인 대상 과학문화와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한솔그룹 계열의 골판지 원지 제조기업 한솔페이퍼텍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최근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로부터 담양 쌀 1만1000kg(550포)를 구매했다. 사진 왼쪽부터 담양군 대전농협 서선호 전무, 대전농협 최용규 조합장, 한솔페이퍼텍 HR지원팀 남윤갑 팀장, 최예인 사원.

한솔페이퍼텍, 담양쌀 550포 구매 ‘지역상생 실천’

사내식당 담양산 쌀 사용

한솔그룹 계열의 골판지 원지 제조기업 한솔페이퍼텍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최근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로부터 담양 쌀 1만1000kg(550포)를 구매했다.

한솔페이퍼텍은 지난해 농협중앙회 담양군지부와 ‘담양쌀 소비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내 식당에서 사용하는 모든 쌀을 담양산 쌀로 전면 전환했다.

최용규 담양군 대전농협조합장은 “한솔페이퍼텍이 담양 쌀을 꾸준히 소비해주어 지역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역 농산물의 소비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한솔페이퍼텍 관계자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비롯해 지역 초등학교 물품 지원, 마을 발전기금 기탁, 환경정화 활동 등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담양=조성용 기자 jnwnews@gwangnam.co.kr



신안군복지재단은 최근 신안군 공설운동장에서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사랑의 김장재료 후원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신안군복지재단, 사랑의 김장재료 후원 ‘훈훈’

10개단체 2000여만원 상당 김장재료 지원

신안군복지재단은 최근 ‘2025사랑의 김장재료 후원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신안군공설운동장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는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10개 기관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김장재료 등 20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후원 물품은 신안군의 특산품인 새우젓, 천일염을 비롯해 간마늘, 생강, 멸치액젓, 찹쌀 등 김장에 필수적인 6종의 재료 등으로 구성됐다.

10개 후원단체는 농협목포신안시군지부, 신안군수협, 신안군살림조합, 목포신협, 압해농협, 신안천사감, 신백목식품, 신의면 웰빙소금밭, 신의면 소금동네, 신안군복지재단 등이다.

이들 단체는 매년 연말연시 이웃을 위한 김장나눔봉사 및 김장재료를 지원해왔으며 지역의 크고 작은 일에도 솔선수범하면서 군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안미영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장과 강정희 신안군복지재단 이사장은 “따뜻한 마음을 함께 해주신 후원단체 덕분에 봉사에 큰 힘이 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김장재료 및 물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21개소와 소외계층 등 5500여 세대를 지원하는 대규모 ‘신안군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평동농협, 어려운 이웃에 김장김치 1300kg 전달

평동농협은 최근 본점 행사장에서 ‘2025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사회 온정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 임직원을 비롯해 부녀회, 고향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 등 농협 여성단체 회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장배추와 각종 재료를 손수 다듬으며,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김장김치 1300kg을 정성껏 담갔다. 김치는 도움이 필요한

조합원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평동농협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삼규 조합장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김장 나눔은 우리 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



평동농협은 최근 본점 행사장에서 ‘2025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사회 온정 나눔을 실천했다.